

태고종 총무원장·비대위원장 구속

11월 3일 구치소 수감... 종단 초유 사태 발생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내용으로 1년 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고종의 양측 수장이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돼 종단의 향방이 미궁속으로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1월 3일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비대위 위원장 종연 스님을 서울구치소에 함께 구속 수감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과 2월, 양측이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도산 스님과 종연 스님이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서울중앙지검과 종로경찰서에서 계속 수사를 받아오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고소·고발을 당한 도산 스님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도산 스님의 폭행 혐의 입증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10월 29일 "두 사람 모두를 처벌

해 달라"고 영장을 청구했고 이를 서울중앙지검이 받아들여면서 모두 구속이 이뤄졌다.

집행부 수장인 도산 총무원장 스님이 종단 사상 처음으로 구속됨에 따라 종무행정

구속 직후 부원장이 권한 대행
"종단 종무행정 공백 없을 것"
오는 12월 13일 중앙총회서
총무원장 재선임 결과 '주목'

에 차질을 빚어 종단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 걱정을 제기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태고종은 현재 내용중이지만 양측 합의에 의해 제14대 중앙총회의원 선거를 치르

고 있는 등 화합과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는 중이어서 안타까움은 배가 됐다. 하지만 양측 수장의 구속은 수습 국면에 접어들어 태고종에 찬물을 끼얹은 거나 다름없는 냉랭한 분위기를 초래했다.

이름을 요구한 태고종의 한 중진 스님은 "정말 태고종이라는 말을 신도들 앞에서 하기가 부끄럽다. 갈등과 내용도 모자라 폭력 사건으로 양측 수장이 구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빨리 중앙총회를 구성해 총무원장 재선임을 묻는 등 종무행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양측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태고종은 11월 11일까지 제 14대 중앙총회의원 선거를 마치고 12월 열리는 첫 중앙총회서 총무원장 도산 스님의 재선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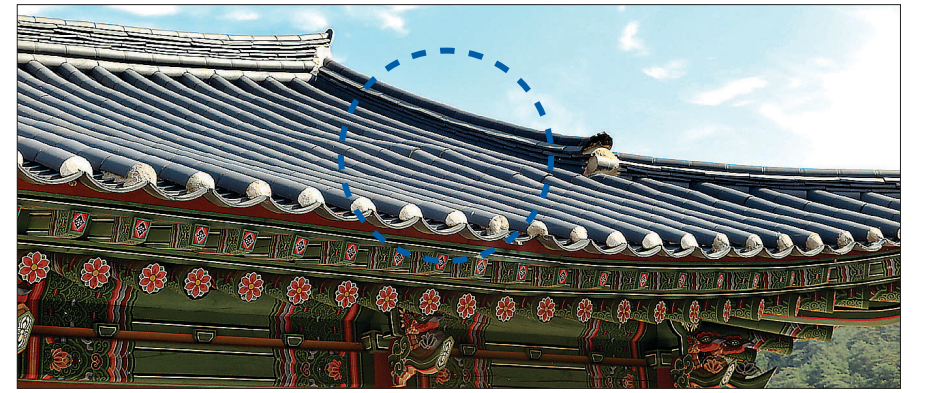
상임종무위원 법담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구속됨에 따라 종원들에게 종무행정 호명 스님이 총무원장 권한대행직을 수

행하고 있어 종단 안팎의 우려처럼 종무행정이 마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11월 6일 현재 22개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 중 3곳을 제외하고는 원만히 총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법담 스님은 "예정대로 다음주까지 선거를 마치고 12월 13일 경 중앙총회가 예정대로 개원되면 그때 제 1호 안건이 총무원장 재선임 문제가 될 것"이라며 "도산 스님이 구속됐지만 계속 신임을 하겠다는 결정이 나오면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불신임으로 결정되면 신임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체제로 돌입해 하루빨리 종단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도 11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산 총무원장 스님은 태고종단을 존폐의 위기로 몰고 간 장본인"이라며 "하지만 함께 구속된 종연 스님은 스스로의 희생을 통해 태고종을 바로 세우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수승전 기와지붕 가운데 부분이 볼록 솟아 있다. 기와 지붕이 볼록히 솟은 것은 내부 기둥이 뒤를 리거나 습기로 팽창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불교교류 상징 신계사, 훼손 심각”

조계종, 11월 3일 신계사 현황 보고... 긴급보존 추진

남북 불교도들이 함께 복원한 최초의 전통사찰인 금강산 신계사의 훼손이 심각하며 긴급보존이 진행돼야 한다는 조계종의 공식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일)와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는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금강산 신계사 건축물 상태 조사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보존 실태를 공개했다. 이번 훼손 상황 점검은 지난 10월 진행된 8주년 합동법회에 참가한 조계종의 문화재 전문가들로부터 이뤄졌다.

조계종 문화부 심주완 팀장은 "2004년 착공 이후 2007년 불사 성만 후 정밀진단을 진행한 적이 없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법회 개최 차원에서만 방문해 훼손이 심각히 진행됐다. 불사 성만시 전해준 여분 기와도 복원이 보수에 사용하다 모두 떨어진 상태"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신계사 대부분의 건물은 기와

끝을 시멘트로 덧대어 유지한 상태다.

세부적으로 기와 끝을 유지하는 외구도가 유실돼 복원이 시멘트로 임시보수한 전각은 대웅전, 만세루, 극락전, 축선전, 산신각, 종각, 최승전이며, 측면의 풍판에 균열이 생긴 곳은 어실각, 나한전 등이다.

특히 요사채인 수승전은 기와 뿐만 아니라 지붕 내부의 나무가 팽창해 형태가 이그러진 상태다.

당초 신계사는 남북불교계의 교류 뿐만 아니라 남측의 불교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재 복원 및 보수 기술을 전해 북측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도 진행됐다.

민추본 사무총장 진효 스님은 "정밀진단하면 더욱 심각할 수 있다. 특히 수승전의 경우 이미 지붕 목재가 틀어진 상태에 기와 내부에 물이 들어가 썩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관계의 상징인 신계사가 제 모양을 찾도록 노력해 12월 말까지는 정밀진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염화미소법’ 원장 선거 혁신 가능하나

조계종 중앙총회, 5일 공청회... 공감·우려 '반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 혁신을 위해 제안된 ‘염화미소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총회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별위원회는 10월 5일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추천을 기반으로 둔 '염화미소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염화미소법' 제안자인 선학원 정상화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염화미소 선거제도'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법등 스님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염화미소 선거제도는 총무원장 후보자 검증을 거쳐 3~5인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 뒤, 중정 스님이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가 시작되면 후보자들에 대한 종단 호법부와 사회기관의 엄정한 검증을 진행하고 기존 321명서 501명으로 확대된 선거인단을 통해 계·정·혜 3명의 최종 후보자를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이후 계·정·혜의 후보 3명을 중정 스님이 최종 인가(추첨)하게 된다.

법등 스님은 "종단 신성을 상징하는 최고의 권위자인 중정 스님이 총무원장 수반을 법적으로 선출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또한 24교구본사 선거인단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선학원·대

각회·전국비구니회를 참여시키는 등의 선거인단 확대에 보다 많은 중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첨을 기반으로 한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현재 종단 상황이 추천제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김 교수는 "중앙총회가 종책 모임을 중심으로 합종연횡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종단 구조는 신중

염화미소 선거제, 간선제 확대안
금권선거 폐해 줄이는 종단 불사
궁극적으로 종도 추대제 바람직
"20%이상 득표자 추천" 제안도

안집권화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진단하고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현재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종단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선거 없이 중도들의 공의를 통한 추대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염화미소법에 대해 선거인단 확대에 선거 열기 과정 △중정 스님의 행정 참여에 대한 부담 △선거인단 1위 후



조계종 중앙총회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별위원회는 10월 5일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추천을 기반으로 둔 '염화미소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보와 최종 선출자가 달라 여론 이반 현상 등을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등 스님은 "후보 3인에 대해 중정 스님이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염화미소가 이뤄진다. 중정 스님의 종단 운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며 "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후보자가 나오면 어떤 스님이 선출되더라도 종단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기문 연세대 교수는 총무원장 선출제도 대안으로서의 추천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총무원장 자격을 가진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진행해 1명을 선출하는 방안 △자격이 되는 스님 중 일정 수의 추천을 받은 후보가

운대 추천하는 방식 △예비선거 후 2~3인의 최종 후보를 대상으로 추천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불교사회연구소 법안 스님은 염화미소 선거제와 추천민주주의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대안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법안 스님은 "일정 수준(법담 10년 이상)의 스님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20%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추천해 선출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며 "선거제도가 변화에 앞서 올바르게 운용되기 위해 법을 열거나 공명정대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 대전환’ 실현 위해 노력”

신대승불교운동본부 준비위원회 10월 31일 발족식

신대승불교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10월 31일 화정문화아카데미 강당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준비위원장·상임준비위원 등을 추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준비위원회를 이끌어 갈 공동준비위원장에는 김성규(변호사), 김풍기(강원대 교수), 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 이정환(대불정 전문위원), 이영철(콘텐츠개발 연구원 원장), 박법수(前 대불청 회장), 전준호(대불청 회장) 등이 추천돼 인준됐다.

이날 준비위원회는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한국불교의 대전환'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준비위원회는 선언문을 통해 "과거 2천년 전 '부처님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구호 아래 출세가 보살들이 불탑광장에서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냉철하게 타파하고, 간절하게 호소했던 대승불교운동을 오늘날로 호호하고자 한다"면서 "사



신대승불교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10월 31일 화정문화아카데미 강당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정환 공동준비위원장이 발족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부대중이 차별없이 참여하고 함께 타파하는 수행공동체를 이룩하고, 이를 동력으로 '한국불교의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도반들과 함께 신대승불교운동의 깃발을 올린다"고 선언했다.

내년 3월 창립을 목표로 두고 있는 신대승불교운동본부는 2020년까지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

신성민 기자

신비령산 소원성취 천지탑
공덕탑을세우는 도량
자비를 나누는 도량

마이산 탐사

회 주 원암혜명 스님

주 지 청파진성 스님

총 무 정해 스님

교 무 보문 스님

홍 보 진승 스님

기 획 진원 스님

대 화 주 태원 박금태 교임

공 덕 주 묘련 강순덕 교임

신도회장 순도문 이순자 보살

나누우리 봉사단장 감로수 윤복길 보살

maisantapsa

[분원]

인천분원 월천사

경기남부분원 태원사

전주분원 실상사

대구분원 해인정사

부산사하분원 구평사

마이산 탐사 감롱장학회

마이산 탐사 나누우리 봉사단

실상사 실상밴드 봉사단

이쁜손이쁜마음 어린이 봉사단

대구 해인정사 연꽃 봉사단

[정기법회(음력)]

매월 1일 초하루 탐 사 법회

매월 3일 초삼일 실상사 법회

매월 15일 보름 월천사 법회

매월 18일 지장재일 해인정사 천도법회

[봉사회]

김장김치 나눔 봉사회

자비의 연탄나눔 봉사회

사랑의 백미나눔 봉사회

어르신 생신잔치 봉사회

밀반찬 나눔 봉사회

전주교도소 교화 봉사회

총 무 소
연 락 처
홈페이지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 남로 367번지
063)433-0012
www.maisantapsa.co.kr